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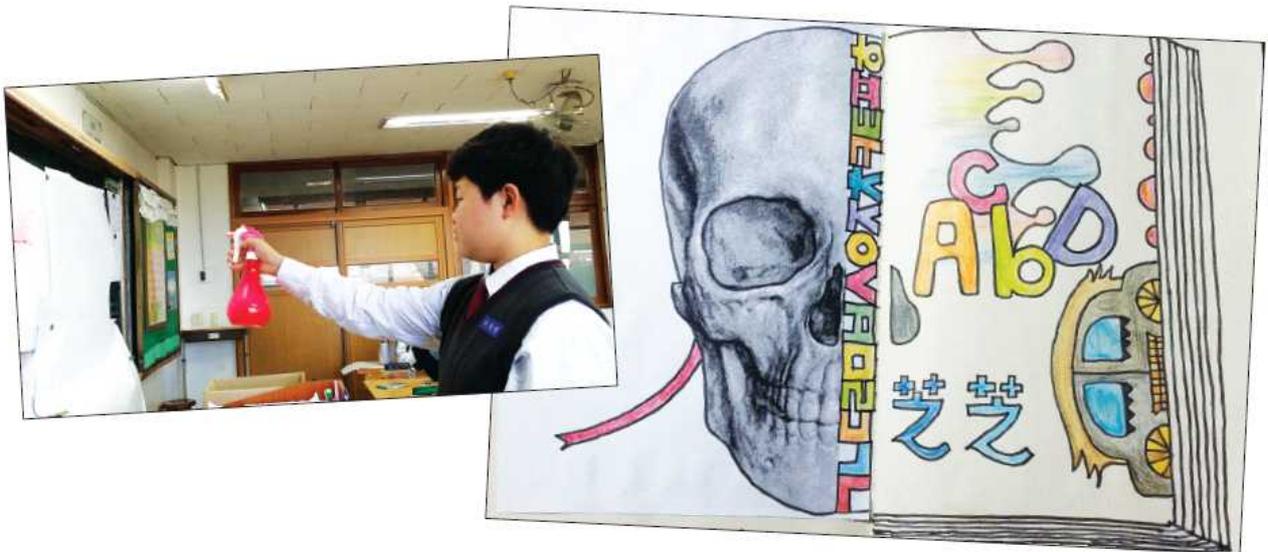
자유학기제 현장돌보기

전국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편성해 운영할 수 있는 오후 자유학기 활동(△진로탐색 △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학생의 수요를 반영해 개설되는 만큼 형태도 다양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할까’ 고민하는 교사들에게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숨겨진 꿈과 끼를 찾아주는 자유학기 운영 사례를 소개합니다.

경기 발산중 ‘예술로 꿈꾸는 시문학’

‘나’는 어떤 사람일까? 시 읽고 그림으로 표현해요



‘예술로 꿈꾸는 시문학’ 수업에서 ‘슈팅 페인팅’을 하는 경기 발산중 학생의 모습(왼쪽)과 수업에 참여한 학생이 그린 자화상. 발산중 제공

“몬드리안은 3차원 세계를 2차원의 점, 선, 면으로 표현해낸 화가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을 점, 선, 면으로 표현해보렴.”

미술 시간처럼 보이는 수업. 알고 보면 경기 발산중의 자유학기 활동 중 주제선택 프로그램인 ‘예술로 꿈꾸는 시문학’ 수업이다. 이 수업에서는 시인의 대표 시를 읽고, 시인의 삶이나 특징과 관련된 예술 활동을 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해 표현한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표현력을 높이고 나아가 시 문학과 그림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 있다.

이 수업을 기획한 김지수 국어 교사는 시문학을 미술과 연계해 학생들의 수업 흥미를 높였다. 이 수업은 지난해 열린 ‘자유학기제 실천사례 연구대회’의 자유학기 활동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 발산중은 2015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로 선정된 후 1학년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시행해왔다. ‘예술로 꿈꾸는 시문학’은 매주 수, 목요일 블록타임으로 묶인 5, 6교시에 총 17차시로 진행됐다.

△오리엔테이션(1차시) △시를 이용해 책갈피 만들기(2차시) △정지용-점, 선, 면으로 표현하기(2차시) △서정주-색과 인간, 꽃 그림 그리기(2차시) △윤동주-나의 자화상 ‘나를 알고 있는 방식으로’ 그리기(2차시) △이상-시와 건축, 내가 살고 싶은 집 도면 그리기(2차시) △김수영-이미지로 나의 분노 다스리기(2차시) △기형도-나의 지금 남기기(2차시) △하상욱, 최대호, 이환천-릴레이 시 짓기(2차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그림으로 시인 이해하며 문학에 대한 관심 ↑

‘예술로 꿈꾸는 시문학’ 수업에는 별도의 학습지가 없다. 대신 교사는 1차시에 학생들 모두에게 빈 노트를 한 권씩 나눠준다. 매 차시 수업마다 학생들은 자신의 노트를 예술 활동으로 채워나간다.

1차시 오리엔테이션 수업 때는 노트의 이름을 정하고 노트 표지에 캘리그래피(손으로 쓴 아름답고 개성있는 글자체)로 노트의 이름을 표현한다. 2~3차시에는 시집에서 작품 하나를 골라 함께 감상하고, 시의 구절을 적어 간단한 책갈피를 만드는 활동을 한다.

4차시부터 17차시까지는 블록타임에 2차시 씩 묶여 진행된다. 블록타임의 첫 번째 시간에는 시인 한 명의 대표 시들을 감상한 뒤 영상이나 교사의 설명을 통해 시인의 삶이나 특징에 대해 배운다. 두 번째 시간에는 앞 시간에 배운 시인의 삶이나 특징과 관련된 예술 활동을 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4차시 수업에서 ‘정지용 시인은 이미지를 형상화해 감각적으로 드러내는 모더니즘 시인’이라는 사실을 배웠다면, 5차시 수업에서는 대표적인 모더니즘 화가인 피에트 몬드리안의 작품을 보고 그의 작품처럼 점, 선, 면을 활용한 그림을 그려보는 식.

교사는 수업 기획 단계에서 미리 시인의 삶과 어느 정도 ‘연결고리’를 가진 예술가 및 예술 작품에 대해 알아보고 수업 준비를 해야 한다. 김 교사는 서정주 시인이 미학적인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시인이라는 점에 착안해 아름다움의 상징인 ‘꽃’을 주제로 조형 미술을 하는 레베카 루이즈 로우와 연결지었고, 시를 통해 자아 성찰의 자세를 표현한 윤동주 시인은 자화상을 그리며 자아 성찰을 한 화가 파블로 피카소와 연결했다.

김 교사는 “딱딱한 텍스트만 읽는 것이 아니라, 시인과 작품의 특징을 ‘꼭’ 집어 그와 연관된 예술 활동을 함으로써 학생들은 시인과 작품을 더욱 오래 기억하게 된다”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시문학의 매력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자아 표현하는 예술 활동으로 표현력 키워

‘예술로 꿈꾸는 시문학’ 수업에서 예술 활동을 할 때는 단순히 화가의 작품을 따라 그리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모든 예술 활동은 ‘자아 표현’을 전제로 한다. 점, 선, 면을 활용한 그림을 그릴 때 단순히 몬드리안의 작품을 따라 그리는 것이 아니라 ‘2차원으로 자신을 표현해보기’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려보는 것.

예를 들어 12차시에 김수영 시인이 시를 통해 분노를 다스렸다는 점을 배웠다면, 13차시에는 슈팅 페인팅(캔버스 위에 물감 주머니를 던지는 기법)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한 화가 니키 드 생팔의 작품을 참고한다. 이후 학생들은 ‘현재 나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을 그리고, 분무기에 페인트를 담아 그림에 쏘면서 분노를 해소하는 예술 활동을 하는 것.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현재 심리 상태를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

김 교사는 “자신이 원하는 색깔로 색칠하거나 그리고 싶은 모양대로 그리는 것도 일종의 자기표현”이라면서 “학생들은 자신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해보며 표현 능력을 기른다. 또한 다양한 방식의 예술 활동을 하면서 창의력과 상상력도 동시에 기를 수 있는 것이 이 수업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최송이 기자 songi121@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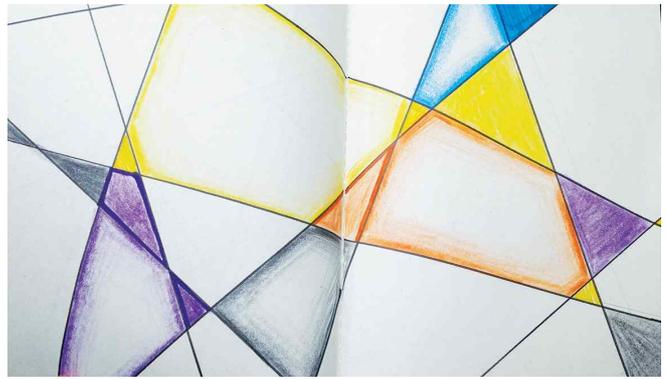
앞서 소개된 자유학기제 활동을 직접 기획·지도한 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자유학기 활동 운영 노하우에 대해 자세히 들어본다.

김지수 경기 발산중 교사가 말하는 주제선택 활동

“표현 낫설어 하던 아이들도 자신감 얻어요”



‘예술로 꿈꾸는 시문학’ 수업에 참여한 학생이 그린 꽃 그림 발산중 제공



‘예술로 꿈꾸는 시문학’ 수업에 참여한 학생이 점, 선, 면을 활용해 직접 그린 그림 발산중 제공

‘예술로 꿈꾸는 시문학’ 주제선택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수업이 끝난 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됐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도한 김지수 국어 교사는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색해했던 학생들도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경험을 했다”면서 “이를 통해 자아 표현 능력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했고, 자신감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예술로 꿈꾸는 시문학’ 수업으로 자유학기제 활동을 진행한 김 교사로 부터 수업 기획 과정과 운영 노하우에 대해 들었다.

▶최송이 기자 songi121@donga.com

Q 수업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중1 국어의 첫 단원은 ‘자기소개하기’인데, 중1 학생들에게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면 대부분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는지 등을 이야기하는 것에 그친다.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남 앞에서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하지만 자유학기제의 목적인 ‘꿈과 끼’를 찾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기 이해와 긍정적인 자아의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자신을 보다 자유롭게 표현하는 방식을 알려주고 싶었다.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자기표현 방법을 알려줄까 고민하다가 ‘형식이 정해져 있는 글 말고도 그림이나 음악, 행동 등 예술 활동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실제로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예술 수업을 활용해 다른 교과에서 배운 개념이나 원리를 익히는 방식을 사용한다. 해당 수업 방식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시문학과 예술을 연계한 독특한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은 즐거워했다. ‘내가 알고 있는 나’를 자화상으로 그리면서 먹을거리와 연예인 외에도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에 대해 더욱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Q 수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수업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다. 다만 예술 활동을 하기엔 교실 환경이 다소 부적합했다는 점은 아쉬웠다.

‘슈팅 페인팅’은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나서 그 위에 페인트를 쏘며 분노를 다스리는 활동인 만큼

페인트를 좀 더 자유롭게 뿌릴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실 안에서만 수업을 진행하다보니 페인트가 교실에 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했다.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고 수업을 진행했지만, 만약 운동장과 같이 넓은 공간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다면 학생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Q 수업의 효과는?

교과서를 통해 시문학을 배울 때 의외로 시인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시어, 시의 분위기, 시의 주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배우지만 시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작품세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기회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예술로 꿈꾸는 시문학’ 수업을 통해 시는 물론이고 시를 쓴 시인의 삶과 작품 세계에 대해 자세하게 배웠고, 나아가 시인의 매력에 대해 알게 된 학생들도 있었다. 한 학생은 수업이 끝난 뒤 ‘롤 모델’에 대해 이야기하는 다른 수업에서 시인 이상을 자신의 롤 모델로 꼽기도 했다. 학생들이 문학의 매력을 알게 되고, 시인을 친숙하게 느껴 더욱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이 수업의 장점이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수업에 소극적이었던 학생들도 점차 자신감 있게 자신을 표현하게 됐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함으로써 꿈과 끼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지수 경기 발산중 국어 교사

교사의 수업지도 도움말

“예시 먼저 보여주면 쉽게 따라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하려면?

학생들이 시인과 예술가의 작품에 대해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윤동주 시인에 대해 배운다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서시’ ‘별 헤는 밤’ 등 시인의 대표 시를 먼저 보여주고, 영화 ‘동주’의 일부분과 같이 윤동주 시인의 삶에 대해 다룬 영상 자료를 보여준다. 피카소의 자화상을 보고 ‘나를 알고 있는 방식으로 그리기’ 활동을 한다면 먼저 피카소가 어떤 식으로 자화상을 그렸는지 이미지로 보여준다. 20대부터 60대까지 피카소의 자화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순차적으로 보여주면서 설명하면 학생들은 활동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학생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펼칠 수 있도록 편안한 느낌의 음악을 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술 활동을 어려워한다면?

매 차시마다 각각 다른 예술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감을 잡지 못하거나 잘 해내지 못할까봐 지레 겁을 먹는 경우가 있다. 교사가 직접 만든 예시를 보여주면 학생들이 훨씬 수월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1차시 때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노트와 동일한 노트에 교사도 직접 예술 활동을 해보는 것이다. 교사가 실제로 살고 싶은 집의 도면을 그려보고, 교사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을 점, 선, 면으로 나타내는 활동을 학생들보다 먼저 해본 뒤 보여주는 것이다.

교사도 예술가처럼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노트를 보여주며 ‘잘 그리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감을 북돋워줄 수도 있다. 또한 예술에는 정답이 없고, 예술 활동이 평가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시켜줘야 학생들이 보다 편안하게 자기표현을 할 수 있다.

제언

예술 활동을 하기 전, 시를 읽어보고 시인의 삶에 대해 알아보는 것에 더해 시인의 작품을 패러디해서 직접 패러디 시를 써보는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다. 글을 읽고 이해하고 쓰는 활동을 하면서 문학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문학과 예술 두 측면을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잘 배분하면 더욱 알찬 수업이 될 것이다.

반드시 정지용, 서정주, 윤동주, 이상 등 유명한 시인으로 수업을 구성할 필요는 없다. 교사가 평상시에 관심 있는 시인과 예술가의 공통점을 찾아 수업을 구성해보면 교사도 더욱 즐겁게 수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고, 학생들도 더욱 다양한 시문학과 예술 작품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